文정부 외교정책과 구한말 패망 외교

韓 외교는 현재 "표류"… 방향성 없어
한반도 문제 주도권 갖고 있지 않아
명칭만 동맹… 북핵 대응 협의 없어
방위비분담 미타결, 훈련 강화도 못해

얼마 전 '쇼 미더 머니(Show me the money)'라는 힙합 경연 프로그램이 있었다. 과거에 무엇을 했든, 어떤 상을 받았든 상관없이 오로지 현장에서 드러나는 실력으로 우열을 평가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이의 어원(語源)은 미국에게 금광 열기가 한창이었을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큰 금광을 발견했느니 엄청난 양의 금을 캤는지를 과장하여 말하자, 그러한 말 필요없이 지금 갖고 있는 금 또는 돈을 보여주라고 요구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이것을 한국 외교에 한 번 적용해보자. 현 정부인사들은 국회답변에서나 다양한 기회를 통하여 그들의 높은 국제정치적 안목과 탁월한 외교적 역량을 과시한다. 그들의 화려한 학력, 경력, 그리고 과거 업적을 현란하게 내세운다. 그들은 미국이나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외교정책 방향을 손바닥 보듯이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다고 말하고, 해당 국가지도자들의 머리 속을 꿰뚫어보듯이 진단하며, 그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처럼 자랑한다.

그런데, 현재의 한국 외교는 "표류"하고 있다는 말이 적절하다고 할 정도로 방향도 없고, 중심도 없다. 서로 신뢰하고 있는 주변국은 전혀 없고, 지역정세에 관하여, 심지어 한반도 문제에 관해서도 한국은 주도권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렇게 탁월한 정부관계자들이, 그렇게 현란한 통찰력과 외교력으로 관리해 왔는데도 왜 결과는 이렇게 시원찮은가? 금을 많이 캤다고 말하는 데 정작 수중에 갖고 있는 금은 전혀 없는 광부와 무엇이 다른가?

현 정부는 한미동맹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있고, 과거 어느 때보다 자주적 한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필자의 평가는 그것과 전혀 다르다. 동맹이라면서도 한국과 미국은 최대의 위협인 북핵에 함께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거의 협의하지 않고, 2020년치 방위비분담금도 아직 타결하지 못한 상태이며, 한미연합 훈련도 제대로 강화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전시 작전통제권을 한국군이 행사할 경우 북한의 오판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데, 현 정부는 미국이 어떻게 생각하든 안보상황이 어떻게 불안해지든 상관없이 현재 미군대장이 보유하고 있는 전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하여 한국군 대장을 한미연합사령관으로 임명하고, 이로서 자주성을 보장하면 된다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필자가 보기에는 한미동맹 관계가 역사상 가장 취약해진 상태이지만, 현 정부인사들은 잘하고 있다고 자평할 것이다.

최근의 간단한 사례로서 1월 20일 취임한 미국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의 전화 시기를 한번 보자. 현 정부인사들은 전화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화의 순서가 중요하다.

바이든 행정부가 갖는 외교적 관심의 우선순위를 나타내는 척도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의 스가(菅義偉) 총리에게는 1월 28일 전화하였지만,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는 그로부터 일주일이 경과된 2월 4일에야 전화했다. 미일 정상의 통화에서는 양국 간의 현안 이외에도 북한의 비핵화, 그리고 한국 관련 사항도 협의했다고 한다.

미국이 한국문제를 일본과 협의하고 있는 것이다. 한미관계는 형식적이고, 양국 정부 간에 충분한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현 정부인사들은 한중관계도 원만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뭐가 잘되고 있다는 것인가? 현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사드(THAAD)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 방어망 참여, 한미일 안보협력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소위 '3불(不)'까지 약속했고, 코로나-19 발생 시 중국인의 입국 통제에도 상당히 조심하였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방한하였을 때는 대부분의 정부 및 여당 수뇌부들이 환대하였고, 1월 26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서 전화하여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을 축하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중국관리들은 아직도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사드 문제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고,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등의 확실한 조치는 나오지 않고 있으며, 왕이 외교부장은 약속 시간에 늦는 등 고압적인 태도를 숨기지 않았다.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하여 전혀 협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엔의 경제제재를 무시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북한을 지원하고 있다. 금을 많이 캤다고 자랑만 하면서 가진 돈은 없는 사람처럼 한중관계가 잘되고 있다고 큰 소리는 치지만 이룩한 성과는 별로 없다.

현 정부의 인사들은 펄쩍 뛰겠지만, 필자는 현 정부의 외교정책이 국가를 패망시킨 한말(韓末) 조선 정부의 외교정책과 매우 유사하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역사를 통하여 되돌아보면 당시 조선은 외교정책 방향을 정립하지 못한 채 이 나라 저 나라를 기웃거렸고, 그렇게 표류하다가 일본에게 병합당하고 말았다. 당시 정부관리들도 자신의 탁월한 국제적 안목을 자랑하였을 것이고, 조선이 열강 사이에서 자주적인 외교를 전개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배웠기에 그 실체를 한다. 조선의 외교는 "표류" 그 자체였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당시 주일본 청나라 공사관 참찬관이었던 황쭌센(黃遵憲)이 당시 조선을 '연작처당(燕雀處堂)'(자신들이 집을 만들어 사는 건물이 불타고 있는데도 그 위험을 모른 채 불구경으로 즐거운 제비와 참새처럼 망국의 위험에 처해 있음을 당사국이 모르는 상황을 지칭하는 고사)이라면서 나름대로의 외교정책 방향을 대신하여 제시하고자 했을까? 황쭌센이 현재의 한국 외교상황을 보면 동일한 평가를 하지 않을까?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시장경제신문 meconomynews.com	**회사명** 에이앤드에프 코리아	
발행인 이성복	**편집인** 유지원	**청소년보호책임자** 서진기
대표전화 02-6919-7032	(우) 04527 서울시 중구 소월로 10, 3층 (단암빌딩)	**기사제보** press@meconomynews.com
등록번호 서울 다 10279	**등록년월일** 2011년 8월 23일	**간별** 주간
인쇄인 및 발행소 동아이앤디 /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1 동아미디어센터 / 02-2020-175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기자수첩

사고는 '자가용 버스' 누명은 '전세버스'

2월 2일 12시 40분쯤 경남 산청군 한 도로에서 경기도 모 축구클럽 선수단을 태운 버스가 중앙선을 넘어 가로수를 그대로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5살 A군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3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그런데 SBS를 비롯해 수많은 언론사들이 이 버스를 '전세·관광버스'로 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세-관광버스'와 '자가용 버스'는 엄연히 다른 버스인데, 언론이 '전세-관광버스'로 표기해 전세버스업계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해당 버스의 사고 사진을 보면 번호판이 흰색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유상 운송을 하는 차량은 번호판이 노란색이다. 반면, 일반 차량은 흰색이다. 따라서 이 버스는 '자가용 버스'이다. 전세버스는 각 시도마다 조합이 있는데, 해당 조합에서도 사고 버스는 자신들 소속이 아니라고 밝혔다.

전세버스업계는 각 언론사에 이같은 내용을 전달하며 '전세-관광버스'를 '자가용 버스'로 정정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업계가 영세하다 보니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한 전세버스 관계자는 "우리 입장에선 축구 선수 사망사고를 농수 선수 사망사고로 보도한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전세버스업계가 '버스 명칭 표기'에 이렇게 민감한 이유는 '불법'과 '안전', '소비자 보호'라는 이슈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81조'에 따르면 자가용 차량은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되거나 임대해서는 안 된다. 단, 예외규정이 있다. 교육 목적, 천재지변, 긴급 수송을 위한 운행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자가용 버스'의 유상운송을 허락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고 난 버스는 예외규정에 포함된 버스였을까. 사고 버스는 경기도의 한 축구클럽 선수단을 태우고 장거리 이동 중이었다. 사정을 고려할 때 축구클럽이 비용을 지불하고 버스를 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 여객법상 불법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전세버스는 정부에서 노후된 버스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차령(車齡)을 제한하고, 기사들에게 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전세버스는 매 운송 건마다 별도의 '운행기록증'을 발급한다. 블랙박스 외에 '운행기록장치'도 탑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사고 예방과 안전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자가용 버스 사고는 말 그대로 '자가용 사고'이기 때문에 통계조차 잡히지 않고 있다. 통계가 없다는 것은 정부의 안전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2019년 5월에도 인천의 모 축구클럽 선수단이 자가용 버스를 이용하다가 2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당했다.

해당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S자로 굽은 내리막길이었다. 사고 원인은 앞으로 정밀 감식을 통해 밝혀지겠지만 버스의 노후화나 운전기사의 부주의 등이 원인일 수도 있다고 전세버스업계는 지적했다. 전세버스업계는 자가용 버스를 '도로 위의 시한폭탄'이라고 부른다. 정부와 국민 그리고 언론이 '자가용 버스 안전'을 다시 한 번 고민할 때다.

정규호 기자 jkh@meconomynews.com

기자수첩

정용진 5년전 "경쟁상대는 야구장"… 밑밥?

새해 벽두부터 신세계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정확히는 신세계그룹 정용진 부회장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지난해 연말 인사에서 SSG닷컴에 힘을 실어주며 올해 이커머스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드러냈지만 주변의 예상보다 훨씬 파격적이다.

신세계그룹은 지난해 강희석 이마트 대표를 SSG닷컴 대표와 겸직시키며 온·오프라인의 통합 시너지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티몬, 쿠팡 등의 주요 인재를 영입하며 SSG닷컴의 성장에 힘을 보탰다. 내부적으로 임원들뿐만 아니라 주요 직원들의 보직 이동도 있었다.

이어 정 부회장은 네이버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를 만나 향후 두 기업 간 협업에 대해 논의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1위 기업 수장의 회동은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두 기업의 협업은 업계 판도를 변화시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 부회장의 파격 행보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프로야구단 SK와이번스를 전격 인수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신세계가 프로야구단을 인수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부분이다. 정 부회장이 2016년 고양 스타필드 오픈 행사에서 "향후 유통업의 경쟁상대는 테마파크나 야구장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당시 이 발언이 현재의 상황으로 연결될 지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

이 모든게 단 두달여 만에 진행됐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모두 정 부회장의 뚝심에서 비롯됐다. 정 부회장의 파격적인 결정에는 최근 급변하는 이커머스 시장을 장악하겠다는 의지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경영 전문가'인 강희석 대표를 SSG닷컴 대표로 겸직 시키고, 온라인 1위인 네이버와의 협업 추진을 단행해 온라인 플랫폼 확장에 나선 것이다. 여기에 야구단 인수란 예상치 못한 승부수를 던졌다.

야구단 이름도 이마트가 아닌 SSG으로 명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일렉트로스를 상표권 등록을 진행하며 'SSG일렉트로스로'가 새 구단명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야구단 운영도 여러가지 노림수가 있겠지만 'SSG' 브랜드를 띄우기 위한 최적의 마케팅 전략으로 보인다.

정 부회장의 이러한 광폭 행보들 두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두주자로 치고 올라가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코로나 상황에서 다양한 시장 변화를 토대로 그 이후를 사전에 준비하겠다는 의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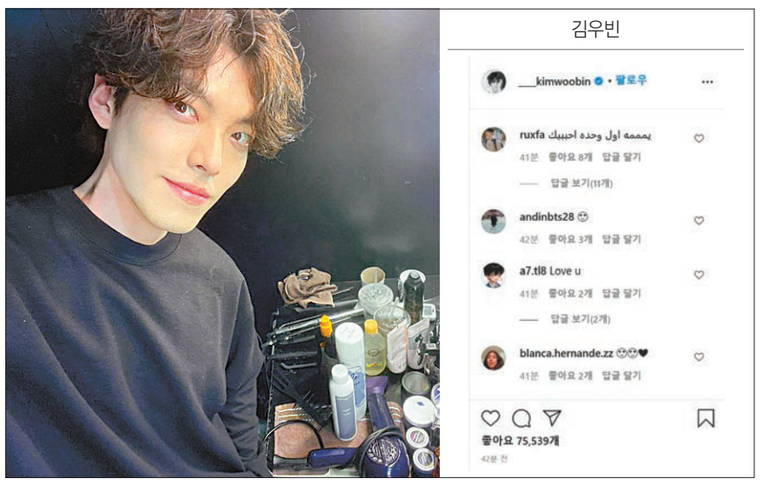
SSG닷컴의 최근 실적도 상승세다. 쿠팡과 이베이코리아에 이어 매출 1조원 돌파가 유력하다. 올해는 흑자도 예상된다. 특히 SSG닷컴은 올해 업계 3강으로 올라설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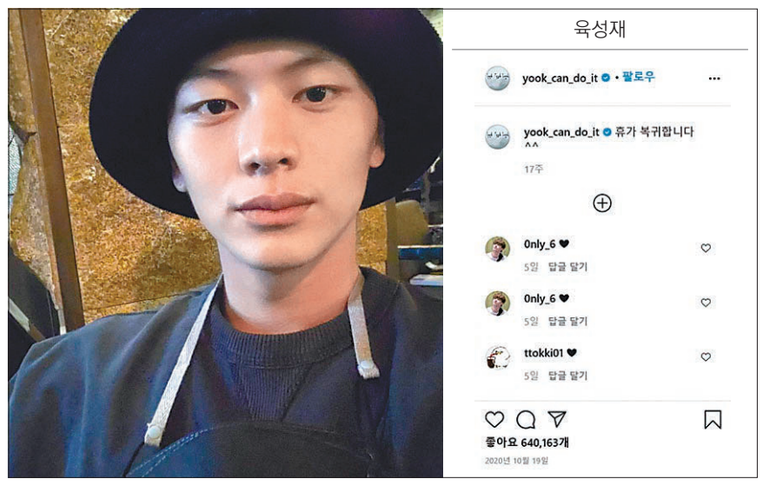
업계에서는 정 부회장의 파격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예상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코로나 시대 온라인은 급성장했고, 이런 추세는 코로나 이후에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며 "시대가 변할 때 이를 미리 준비한 기업은 업계 강자로 군림한다. 이를 정 부회장이 광폭 행보로 몸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준영 기자 ljy@meconomynews.com

SNS 스타 SNS





2021 신축년(辛丑年) 1월의 띠별 운세

2021년 01월 1일 ~ 2021년 01월 31일까지 띠별 운세입니다
사주역학의 만남 라이프비전(www.lifevision.co.kr) 제공

쥐(자, 子)

분수에 넘치면 손해 본다.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실수를 하지 말라. 너무 큰 일을 바라지 말고 자기 능력에 맞춰 본분을 지킨다면 무난할 것이다. 60년생 마음을 다잡아야 하는 시기이다. 마음을 잘못 쓰면 좋았던것도 나빠질수 있다. 72년생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더 큰 문제를 만드는 것이다.

소(축, 丑)

하늘의 도움을 받았다 할 만하다. 막힘 없이 진행되는 모든 것들이 그저 신기할 뿐이다. 새로운 일을 시작해도 좋고 뜻했던 일들을 과감히 진행해도 좋다. 61년생 그 동안 노력의 대가를 충분히 보상 받는다. 73년생 자주 만나지 못했던 지인으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이 온다.

호랑이(인, 寅)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좋지 않다. 주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용한다면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할 일을 미루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니다. 관리에 신경쓰라. 62년생 사막 같은 마음에 오아시스를 만난 것 같은 기쁨을 느끼게 된다. 74년생 욕심으로 활동을 벌이기보다는 재충전을 하는 것이 득이 된다.

토끼(묘, 卯)

뒤돌아 보는 시간을 갖어라. 너무 서둘러 진행하는 것은 아닌지, 해야하는 일이 맞는지 한번쯤 생각해 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조급함을 버리고 한박자 쉬어 간다는 마음을 가져라. 63년생 나이 어린 사람의 도움이라도 무시하지 마라. 오늘의 귀인은 나이가 어린 사람이다. 75년생 자신의 문제부터 해결한 후에 남의 문제를 도와주든 참견을 하든 해야 한다.

용(진, 辰)

즉흥적인 판단이 흐려질수 있으니 계획에 없던 일을 진행하게 된다면 다음으로 미뤄라. 계획된 일만 진행하는 것이 좋다. 대인관계는 매우 좋으니 많은 사람을 만날 수록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64년생 약간의 난점이 있을 듯하다. 오후에는 금전문제가 잘 풀릴 것이다. 76년생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보증, 금전관계는 두 눈을 질끈 감고 거절할 것.

뱀(사, 巳)

활동성이 좋다. 새로운 것에 흥미로움을 느끼게 되며 새로운 목표가 생길 수 있다. 도전과 모험심이 생긴다. 새로운 일을 기획하고 계획하는데 시간을 할애 하는 것도 좋다. 65년생 새로운 방향으로 나간다. 의욕을 가지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라. 77년생 주위 사람에게 세심한 관심을 가져라.

말(오, 午)

긍정적인 힘이 작용하는 시기이다. 기대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쉽게 해결이 되며, 금전적인 부분도 만족하게 된다. 매끄럽지 않던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되니 지나친 욕심만 내지 않는다면 좋을 것이다. 66년생 생각했던 것이 의도대로 진행되지 않게 되어 당황스럽지만 뜻을 굽혀서는 안된다. 78년생 감정이 너무 앞서는 가는 것은 아닌지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한다.

양(미, 未)

재충전의 시간을 갖자. 지난 몸과 마음을 쉬게 하는것도 중요한 일이다. 몸 버리고 재물을 취한들 무슨 의미가 있으리. 장거리 보다는 단거리 여행이 좋으며 가정에서 편하게 보내는 것도 좋다. 67년생 하고 있는 일에 전념하라. 연구하는 분야에 있어서 좋은 날이다. 79년생 스트레스가 쌓이면 없었던 병도 생길 수 있으니 그때그때 잘 풀어야 한다.

원숭이(신, 申)

꿈꾸던 일들이 현실로 이뤄지는 시기이다. 바라던 일들이 있다면 원만하게 해결 될 것이다. 이런 때일수록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모습을 보인다면 더 좋은 행운이 찾아 올 것이다. 68년생 집안에 반가운 2세 소식이 들려온다. 부모가 될 준비를 차분히 시작해야 하겠다. 80년생 왜 이렇게 시간이 더디게 가나 하는 생각이 들 것이다.

닭(유, 酉)

한번 이야기한 말은 되돌리기 쉽지 않다. 괜한 오해의 원인이기도 하다. 하찮은 실수로 문제를 만들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상대에 대한 평가는 가급적 자제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좋겠다. 69년생 행복한 기억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날이다. 81년생 어차피 정리할 것이라면 미루지 말고 오늘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

개(술, 戌)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럴때 일수록 치밀한 계획과 보다 많은 노력으로 새로운 것을 시도해 미래를 계획해야 한다. 70년생 오해만 깊어지니 입을 꼭 다물고 있으면 안 된다. 82년생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은 기분이 들 것이다. 94년생 실망스런 행동을 하는 때문에 상처를 받지 마라.

돼지(해, 亥)

어려움 없는 일이 얼마나 되겠는가. 동요하지 마라. 이정도의 시련쯤은 거뜬히 이겨낼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생각을 소신것 펼치고 행동해도 무방할 것이다. 자신감을 갖어라. 71년생 그나마 마음의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라. 83년생 수입이 줄어든다. 현재의 상황을 더 유지해나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된다.